

기아차, 현대차 제치고 첫 수출 1위 질주

광주공장 증산 효과

7월까지 77만2559대

쏘울 북미시장 선점 한몫

증산프로젝트가 완료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기아차의 글로벌 시장 장악에 특별한 역할을 해냈다. 기아자동차는 올해 7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해 첫 수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1~7월 77만2559대를 수출해 현대차(72만2129대)와 5만대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수출 선두에 올랐다.

KAMA가 반조립 제품을 제외하고 1994년부터 수출 실적을 집계한 이래 기아차가 누적 기준으로 수출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GM대우가 수출 1위에 오른 1998년을 빼면 1위를 항상 현대차가 차지했다.

올해 7월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완성업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의 수출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기아차는 무려 14.3%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4.8%에 그쳤다.

기아차의 수출 증가는 광주공장 증산효과 덕분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광주공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연산 50만대 규모에서 62만대 체제로 생산 물량을 끌어올렸다. 그해 10월 광주공장은 1개월 동안

4만6215대를 생산했고, 11월에는 광주공장 사상 첫 5만대 생산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처럼 북미 시장에서 선전하는 차종의 인기도 한몫했다. 쏘울의 미국 수출량은 지난 5월 1만 6000대를 기록, 월간 판매 최대기록을 경신했으며 1~5월 누적 판매량은 6만3071대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5만1744대)보다 21.9%나 판매량이 증가했다.

기아차는 1975년 브라질 픽업 10대를 카타르행 선박에 싣는 것으로 수출 물꼬를 튼 이래 1987년 누적 수출 10만대, 1993년 5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1995년 수출 누계 100만대 고지에 올랐다. 지난 1998년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는 현대차와의 격차를 좁히며 2005년 누적 수출 500만

대를 넘어섰고, 디자인경영과 해외판매망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며 수출 500만대 달성 불과 6년 만인 2011년 누적 수출 1000만대의 금자탑을 쌓았다.

한편, 올 7월까지 나머지 업체의 수출실적은 한국GM 29만1199대, 쌍용자동차 4만6363대, 르노삼성자동차 3만2922대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 규모는 1995년 100만대, 2004년 240만대로 점차 증가해 2011년부터는 300만대 규모로 성장했다. 또 지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수출 747억 달러, 수입 11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인 63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며 1984년 이래 30년 연속 무역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임동철기자exian@kwangju.co.kr



개점 19주년을 맞는 광주신세계가 지역민이 원하는 일상의 가치들을 반영해 지역 유통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전경. (광주신세계 제공)

성년 맞는 현지법인 광주신세계

오늘 개점 19주년 맞아

지역 라이프스타일센터로

지난 1995년 현지법인으로 출범한 광주신세계가 25일 개점 19주년, 성년의 나이를 맞는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19주년을 맞아 지역민이 원하는 일상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한편 지역유통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차별화된 고품격 상품 및 고객의 다양한 생각과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도입하며 지역 상권에 최적화된 상품 밸런스 재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품관은 지난 4월 총 30여억원을 들여 구조변경을 마쳤다. 'SSG 푸드마켓', '후레쉬 마켓'을 표방한 신세계만의 식품 운영 노하우가 집약된 설계로 탈바꿈해 지역민에게 즐거운 음식문화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5월 신세계 그룹 온라인 쇼핑 포털 사이트인 'SSG.COM'에 온라인 매장을 새로 입점 시켜 본격적인 온·오프 라인 통합 영업시대를 열었다. 현재 총 190여개 브랜드, 약 3만8000여점의 상품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지난해 8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



유신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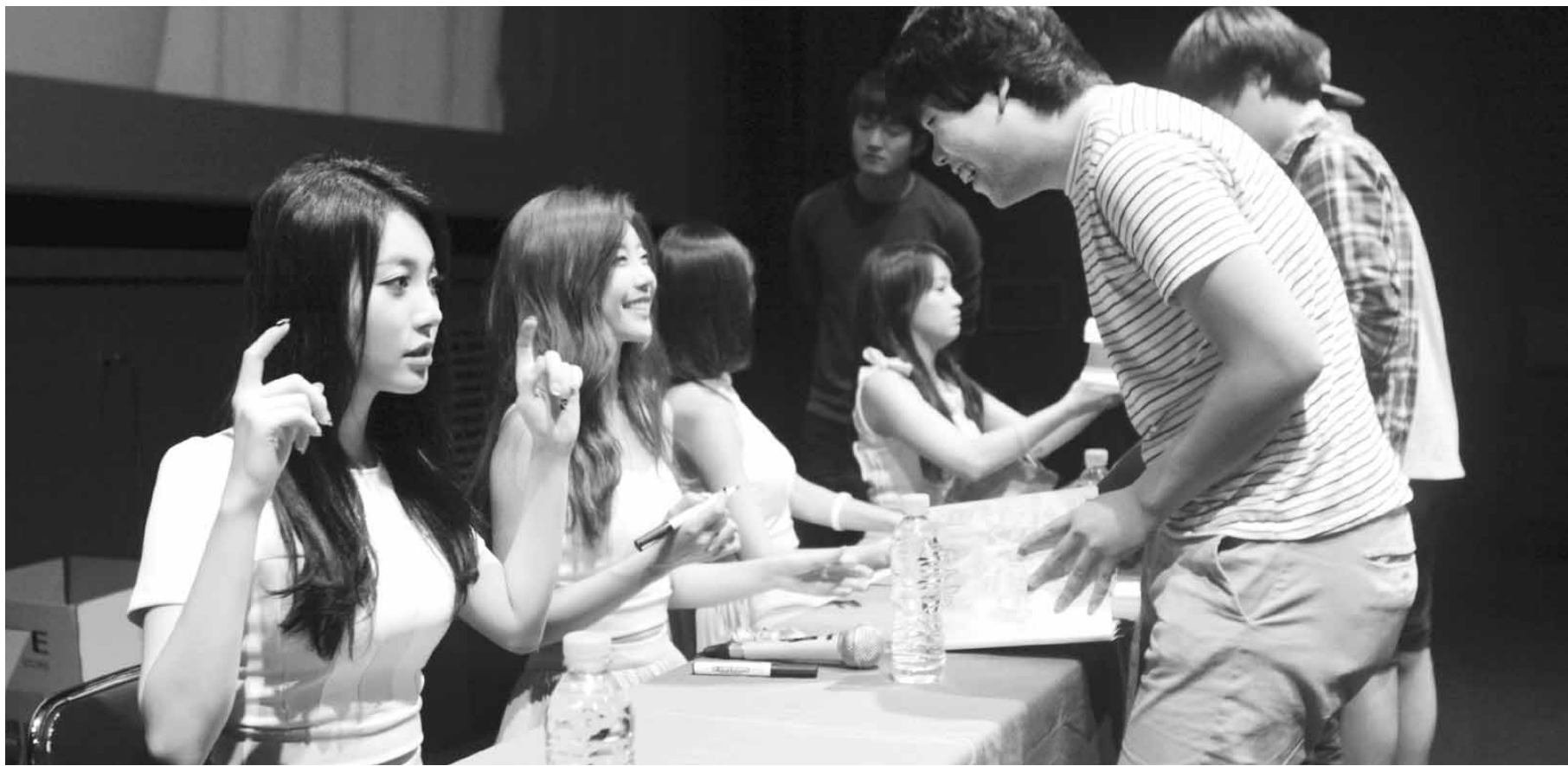
및 동반성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영노하우 전수 및 이를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통시장 내 검정 비닐 봉투를 대신할 세련된 디자인의 비닐 봉투 50만장을 자체 제작, 무료로 증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각종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던 신개념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희망배달마차'는 지난 1년간 총 3억원, 4857세대의 소외된 이웃을 후원했다. 지난 13일에는 광주시 및 광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희망배달마차 사업을 3년 연장하는 MOU를 체결, 향후 8억1000여만원의 추가 후원하기로 했다.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를 지역 최대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광주도 브랜드 가치도 높여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그리고 지역민과 따뜻한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지난해 8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걸스데이 광주 펜 사인회

4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가 지난 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에서 펜사인회를 가졌다. 백화점을 찾은 남성팬들이 걸스데이 멤버 사진, 유라, 민아, 헤리의 사인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설익은 추석... 과일 제수용품↑ 채소↓

전통시장 차례상 19만1천원

예년보다 훨씬 이른 9월 초에 추석이 찾아오면서 추석 제수용품 중 과일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 가격 동향'을 보면 22일 기준 사과(후지)의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보다 8.7% 오른 개당 2943원으로 집계됐으며, 배(신고) 가격은 지난해보다 6.2% 오른 개당 3670원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 요인은 과일 수확이 끝난 시기에 전례를 따라 추석이 다가오면서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단감·밤 등은 추석이 지난 9월 중순 이후에야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돼 지난해보다 가격이 40%가량 급등할 전망이다.

채소 가격은 울어름 급락했다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난해 가격보다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무 가격은 개당 1565원으로 지난해보다 26.7% 하락했으며, 대파 가격은 지난해보다 4% 떨어진 kg

당 2321원으로 집계됐다. 배추 가격은 포기당 3295원으로 지난해보다 32.4% 떨어졌으며 시금치와 고춧가루 가격도 각각 20.8%, 14.3%씩 하락했다. 다만 고사리와 도라지 등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전망이다.

축산물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오른 반면, 닭고기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통시장 16곳과 대형유통업체 25곳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19만1000원, 대형유통업체에서는 27만3000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612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40
6	9 18 19 25 33	4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81,705,250	11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6,719,655	59
3	5개 숫자일치 1,181,921	1,833
4	4개 숫자일치 50,000	86,228
5	3개 숫자일치 5,000	1,364,516

광주세관, 추석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광주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5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단속 품목은 조기,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을 비롯해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와 곶감, 대추, 한과 등 추석 선물세트 등이다.

단속대상은 수입물품을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당시에 표시된 원산지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유관기관 및 관내 세관과 특별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홍행기자 redplane@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BNC빌딩 수형, 약영빌딩5층 501호, 동행문선시장, 아바폴드2차량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기적공약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대)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